라쿠잔엔

라쿠잔엔은 에도시대(1603-1867 년)의 거상, 오사카야 미와 가문의 별장 터에 있습니다. 정원이 가파른 경사로 되어 있어 본채에서는 주변 마을과 산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5 월 중순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며, 일몰 후에 조명이 켜지고 티타임이나 연주회 같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라쿠잔테이와 정원

성 같은 옹벽을 따라 난 길을 걸으면, 1892 년에 오사카야 미와 가문의 11 대 당주가 지은 라쿠잔테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건물이지만 방문한 사람들을 환대하기 위해 세심하고 세련된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의 기둥 일부를 생략해 눈 아래에 펼쳐지는 거리를 더 보기 편하게 만들거나, 다다미방과 욕실, 복도에는 방문객들을 기쁘게 하는 장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돌을 일본 각지에서 운반해 오거나 도코노마(일본 전통 가옥의 장식용 공간)에 희귀한 목재를 사용하는 등 건물과 앞뜰의 소소한 요소들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저명한 각계 유명 인사들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고개를 더 올라가면 현재 니가타시의 북방 문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다실을 재현한 '세키스이안'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끝에는 작은 관음당이 있으며, 14 세기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오사카야 미와 가문

무가였던 미와 가문은 나가오카에 이주하여 상인 가문인 오사카야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후 요이타(현재 나가오카시)에 지점 설립을 허가받아 쌀과 소금, 해산물을 교토와 오사카로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직물과 약, 서적 등을 가지고 돌아오는 해상 운송업을 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18 세기 중반의 오사카야 미와 가문은 일본 굴지의 일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유한 상업 가문이었습니다.

승려이자 시인, 료칸

오사카야 미와 가문은 시인과 서예가로도 유명한 조동종의 승려 료칸(1758-1831 년)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료칸은 나가오카 근교에서 태어나 인생 대부분을 이 지역에 은둔하며 보냈습니다. 료칸은 때때로 별장을 방문해 특히 6 대 당주의 남동생이었던 사이치와 당주의 딸 이쿄니와 친하게 교류했습니다. 이후 사이치는 료칸에게 불법을 배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쿠잔엔에는 료칸의 말이 새겨진 2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료칸이 여행 중에 추운 겨울 건강을 염려하며 이쿄니에게 보낸 편지를 재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이치의 사후에 료칸이 쓴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소중한 친구를 잃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봄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